

지역 소식통

완주군, 여름철 제4차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완주군이 오는 8월 16일까지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이번 4차 발굴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라 주거 취약가구 및 에너지 취약계층(온열환자, 단전·단수 가구)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경제적 위기가능성이 높은 500여 명이 대상이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대상자는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가용하여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별 복지 욕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완주군은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AI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사항은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우수제안 5건 선정

완주군이 규제개선을 위한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군은 지난 12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문성철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총 8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완주군 지방규제혁신IT팀의 1차 심사를 거친 5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고,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였다.

군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 반대”

완주군, 완주전주통합 추진 서명부·반대 서명부·의견서 함께 전북자치도에 제출

지난 12일 완주군이 완주-전주역사복원위원회 등 통합추진단체가 제출한 완주-전주통합 통합건의 주민 서명부 검토를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지난 6월 12일 통합추진단체에서 제출한 6,152명의 서명부를 1달간 검증하고 지난 9일 통합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3만2,785명의 반대서명부와 완주군 관련 의견서를 함께 전달했다. 완주군 의견서에는 △일방적인 행정

통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 우려 △의회 및 각 사회단체의 지역 여론 △의 산권을 포함한 광역권 대안 제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회의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쟁점사항 검증과 평가, 타지자체 통합사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군수는 “일부 민간단체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해 2013년 주민투표 당시와 같은 주민 갈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완주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승격을 추진하고, 전주시·익산시와의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특교세 8억 확보

행안부 주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고향올래(GO 鄕 ALL 來) 공모사업에서 두 지역 살이 '안녕! 굿만경 창작제주소' 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지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위케이션, 은퇴자마을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최종 12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두 지역 살이 '안녕! 굿만경 창작제주소' 사업은 특교세 8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역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 인구 활력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민정에 화제로 훼손

된 재재소를 리모델링해 주거공간, 목공방 체험장, 커뮤니티, 사무공간 등을 조성,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거점지로 재건할 계획이다.

만경제주소는 주변 농지와 함께 김제의 불거리로 자리잡아 나들이객들에게 목공체험과 전시 공연 등 문화향유의 공간을 제공해 김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늘리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기재부 찾아 국가 예산확보 총력전

미래 성장·동력원 확보 위해... 내년 예산 반영 적극 건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11일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관련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일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관련 2차 심의(7.9~8.2.)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도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

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주요 중점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트럭수선설

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총사업비 400억원),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2차(총사업비 316억원), △기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총사업비 409억원) 등 10개 사업으로 정 시장은 관련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초 속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2025년 정부예산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전북자치도와 이원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소·미반영 사업뿐만 아니라 반영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활력타운 사업 본격 추진

힐스타운 사업 조성 위한 기본 구상 전략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일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된 힐스타운 사업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본 구상 전략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영개발과장을 비롯한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활력타운의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등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이날 △지역활력타운 차별화 전략, △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건축 계획, △수요자 분석 및 커뮤니티 운영계획 등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자문건축가를 위촉해 지역활력타운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자문건축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기간 동안 기획단계부터 단지와 주택 건축의 방향 제시 등 지역과 소통하며 총괄조정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에 참

여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 및 청년, 수도권 은퇴자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상동동 일원에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타운하우스 80세대(4층이하 10동), △단독주택 18세대, △커뮤니티센터 건립(2층, 연면적1300㎡), △근린생활형 소규모실내체육관(1층, 800㎡)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인구유입 1,000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방소멸위기 속 김제시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확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차별화된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체육회가 지난 11일 월촌초등학교에서 체험형 프로그램과 스포츠버스, 작은 운동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체육회, 체험형 스포츠버스 진행

월촌초등학교서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지난 11일 월촌초등학교에서 체험형 프로그램과 스포츠버스, 작은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사와 전교생 약 70여 명이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해준 단체티셔츠를 입고 드론 및 골프, 뉴스포츠 등을 체험해보고, 스포츠버스에 탑승해 영남매체를 통해서만 접해왔던 양궁, 펜싱 등의 운동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작은 운동회까지 실시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체험하고, 작은 운동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운영해 왔다. 김제시체육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를 통해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 선정된 전국 35개 학교 중 김제에서는 1개교(월촌초)가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